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십진분류법(KDC) 활용현황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Utilization of KDC Based on Literary Warrant

김 성 원 (Sungwon Kim)**

목 차

- | | |
|-----------------------------|------------------|
| 1. 서론 | 3. KDC 분류항목 활용현황 |
| 2.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 | 4. 결론 |

초 록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는 모든 주제분야를 포괄한다. 전체적인 분류체계는 문헌정보학 전문가가 구성하더라도, 개별 주제영역의 분류항목 구성과 전개는 해당 주제영역의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체 주제를 포괄하는 문헌분류체계가 각 주제분야에서 개발한 분류체계의 단순한 모음이 아닌 실용적인 분류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배정되는 문헌량의 다과를 반영한 항목 설정과 세분이 필요하다. 분류항목의 설정에 있어 문헌량의 다과에서 항목 설정의 타당성과 근거를 찾는 것을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라 부른다. 본고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전개된 각각의 분류항목에 어느 정도의 정보자원이 배정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General-purpose classification scheme encompasses all subject areas, While the whole classification scheme is constructed by library studies experts, structure and preparation of each specific subject area's classification should be referenced to that specific subject. In order for the whole system to be practical and useful classification scheme, not just a simple collection of each subject area's scheme, it is necessary to set the rule for properly distributing the amount of classification items, and the collections assigned to these items. The rule to set the distribution of items based on the amount of document collections is called 'literary warrant'. This study examines actual status of assignment of each classification items to information resources,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then suggests a way to improve these practices.

키워드: 분류, 문헌분류, 한국십진분류법, 문헌적 근거, 문헌량 근거, 문헌적 타당성, 활용, 개정
Classification, Library Classific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Literary Warrant, Utilization, Revision

* 이 연구는 충남대학교 CNU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ungwonk@cnu.ac.kr / ISNI 0000 0004 7490 2525)

논문접수일자: 2021년 4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5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2): 25-50,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2.025>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문헌분류체계는 정보매체가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주제에 따라 조직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지식과 정보의 주제는 다양하며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는 모든 주제영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물을 조직화된 체계에 원만히 담아 내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자체의 연구에 더하여 개별 영역에서 정리한 해당분야의 지식체계를 참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각 분야에서 구축한 지식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문헌분류체계로 종합하는 것은 아니며 수집된 자료들이 담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질서있게 담기위해 실용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수행한다. 각 주제분야의 이론적 논리성과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실용적 검토가 상충되는 경우 문헌정보학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실용성에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이러한 실용성 관점의 검토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특정 주제를 담고 있는 정보자원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관련된 문헌적 근거이다. 보고는 문헌적 근거의 관점에서 한국십진분류법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연구배경 및 목적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는 특정 주제를 다룬 문헌의 다과를 분류항목 설치 결정의 근거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실용적 관점의 의사결정은 특정 분류항목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표현하는 색인어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정 주제를 다룬 저작이 많다면 해당 항목을 설치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특정한 용어로 사용한 자료가 많다면 해당 용어를 채택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류체계에서 문헌적 근거는 특정 주제분야를 철학적,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항목을 설정하는 추상적인 지식의 이론적 조직화와는 달리 해당 주제를 다룬 저작의 양이 과연 분류항목을 설치할 만큼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실무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론적 기준이 아닌 실무적 기준이므로 그 중요성을 낮게 볼 수도 있으나 문헌분류체계가 개별 주제영역의 이론 위주가 아닌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용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문헌분류체계 구축과정에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실용성이 이론적 논리성과 상충되면 실용성을 우선하여 왔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해당 학문영역의 이론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주제를 수용, 활성화된 주제항목의 증설, 신설 혹은 증설되는 항목 간의 관계설정, 그리고 해당 주제를 표현하는 색인어의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의 방법론에 있어서 해당 주제분야의 이론적 논리적 분류체계를 토대로 하고, 분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다과를 일부 반영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문헌적 근거의 관점에서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잠재적 개정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대상 항목을 상세히 살펴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보고에서는 문헌적 근거를 연구의 축으로 채용하고,

한국십진분류법의 분류항목의 활용현황을 살펴본 후,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정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한 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문헌적 근거의 관점에서 한국십진분류법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류항목에 분류된 정보자원의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십진분류법 분류항목별 정보자원의 확인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을 선택한 이유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기관으로 모든 국내발간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선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별도서관의 예산상 제한이나 수서정책에 따른 편향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분류작업을 위한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고, 작업의 결과는 다른 도서관들에서 참고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표준적이고 일관된 분류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본고는 한국십진분류법 6판을 대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바, 대상을 6판이 적용된 이후에 구축된 목록레코드로 제한하였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목록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한 후, 발견된 하나의 문제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수집량이 특정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이었다. 분류법 사용 실태에 조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KDC를 사용하

는 관중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장서의 규모는 중·소규모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3권 22). 공공도서관에서의 활용을 전제로 검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장서규모를 확인할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 1,134개관의 장서량의 평균값은 101,477종, 중위값은 76,433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장서량 상위 100개관의 평균장서량은 31만 4천종 정도로 파악되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장서규모를 가정하여 30만건 내외로 분석의 대상을 설정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십진분류법 6판을 적용한 2014년 이후 목록레코드가 34만건에 달한 시점인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 34만건의 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목록데이터베이스로부터 2014년~2017년 사이에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류기호별 배정자원수를 수집 가공하여 확보하였다.

본고는 한국십진분류법의 특정 주류가 아닌 전체 주류를 대상으로 분류항목의 활용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의 단위를 주류별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정에서 발견된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십진분류법의 최상위 계위인 주류항목이라도 주류에 따라 포괄하는 범위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류의 경우 하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제, 법학, 물리, 화학, 생물, 전자공학 등 강항목의 주제들이 다른 철학, 종교 등의 주류에 버금가는 연구범위와 정보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KDC 모든 주류를 동일한 척도로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동일한 척도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

한 주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주류는 제외하였다. 이들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주류에 대한 분석은 각 주류별로 하위 강항목에 배정된 주제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활용현황을 살피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주류별로 구분한 후, 주류내의 분류항목별로 배정된 정보자원의 수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주류별로 정보자원이 분류되어 활용된 분류항목의 수, 활용된 항목별로 분류된 자원의 수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분류항목의 증설과 확장을 위한 문헌적 근거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주류별로 세분방안의 모색 및 확장을 검토할 대상 항목들은 자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내외의 항목, 그리고 분류된 자원수가 300건 이상인 항목을 대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상위 항목의 자원수가 300건에 미치지 않았던 총류, 종교, 예술류의 경우에는 건수와 무관하게 상위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별한 항목을 대상으로 하위 항목의 세분 및 증설이 필요할 지를 검토하였다. 확장 및 증설이 필요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남겨두었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또 다른 분석으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분류항목을 축소, 폐지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류별로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은 항목들을 분리하고 미활용된 항목들

을 검증하였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항목의 확장과 축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일 항목의 활용여부만이 아닌 동위항목들과의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개의 동위항목이 전개되어 있고 하나의 항목만이 미활용되었다면 분류체계의 논리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향후의 활용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개된 동위항목 모두가 미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활용가능성도 낮을 것이므로 해당 항목을 상위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Barite, 2018). 이에 따라 미활용 항목을 분리한 후, 해당 항목의 동위항목들의 미활용 정도가 과반을 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항목의 축소 및 상위항목으로의 병합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1.3 KDC 관련 주요 선행연구

한국십진분류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발간 이후의 연구만으로 제한하여도 약 70여 편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¹⁾ <표 1>은 한국십진분류법 6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헌적 근거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한 내역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십진분류법 관련된 연구는 크게 분류표 전반에 관련된 연구와 특정 주제분야에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류법 전반에 관련된 연구 가운데 한국

1) 2021년 3월 DBPia를 검색한 결과, 한국십진분류법과 관련하여 4판 발간이후 수행된 연구결과로 70여 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이 가운데 4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40여 편, 5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20여 편, 6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10여 편 정도인 것으로 집계된다.

〈표 1〉 한국십진분류법 6판과 문헌적 근거 관련 선행연구

관련 주제분야		연구자	논문제목	발표년
관련 주제	세부주제			
전반	용어	정옥경	한국십진분류법의 디지털 관련 항목명 확장전개에 관한 연구	2014
	어린이도서	오영옥, 이미화	어린이도서 분류를 위한 KDC 6판 개선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사회과학	관광학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2014
	군사국방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국방·군사학(390)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14
	사회복지학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2017
예술	체육학	이희진,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2013
문학	소설	조혜전, 정연경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 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8
문헌적 근거	밀집계수	전창호, 도태현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십진분류법의 전개 개선방안	2014
	한국소설	김성원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소설항목의 세분방안에 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2012

십진분류법 6판이 발간된 2013년도 이후 6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의 연구로 제한하면 특정 용어와 관련된 항목명 확장과 관련된 정옥경(2014)의 연구, 어린이 도서의 분류를 위한 개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오영옥, 이미화(2019)의 연구가 있다. 한편 6판 발간 이전에 분류법 전반을 다룬 연구들로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분류표의 특정요소인 조기표와 관련된 연구, 분류표의 시·공간 전개체계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주기를 분석한 연구 등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의 갈래는 특정 주제영역의 분류항목 적용현황을 토대로 개정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며, 한국십진분류법 관련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6판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는 관광, 사회복지, 체육학 분야를 다룬 김정현(2013; 2014; 2017)의 연구, 군사/국방분야를 다룬 한경신(2014)의 연구, 그리고 소설자료를 다룬 조혜전, 정연경(2018)의 연구가 있다. 한국십진분류법 5판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영역의 분류 문제를 고찰한 연구는 10여 편 이

상 찾아볼 수 있다.

한국십진분류법 관련 연구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헌적 근거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 '대한민국 국가서지'에 등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십진분류법 강항목별 장서밀집계수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항목전개의 방향을 제시한 전창호와 도태현의 연구(2014)를 언급할 수 있다. 최종결과가 정리되지 않았고 학술대회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으나 한국십진분류법 강항목별 밀집계수를 측정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또 다른 연구로 김성원(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자는 공공도서관의 한국소설의 장서비중은 14%인데 배정된 항목은 813.6, 813.7의 두 세목(細目)항목만으로 기호의 식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적시하고, 세분방안의 마련 필요성을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한 후, 소설의 하위 장르를 세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 한국십진분류법의 특정 주제항목의 개정방향을 제시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으로 해당 주제항목에 배정된 정보자원의 다과와 특정 항목에 배정된 정보자원의 주제의 상이성, 즉 문헌적 근거를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가운데 비교적 명시적으로 문헌적 근거를 개정 필요성의 배경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관광, 사회복지 분야를 다룬 김정현(2014; 2017)의 연구, 체육학을 다룬 이희진과 김정현(2013)의 연구, 그리고 어린이도서의 분류문제를 다룬 오영옥과 이미화(2019)를 언급할 수 있다.

2.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

문헌정보학은 실용적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체계들을 문헌정보학 현장의 실무적 요구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주제분야를 포괄하는 범용 분류체계의 구성 과정에서는 철학, 과학 등 포함되는 개별 주제 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체계와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문헌분류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주제영역에서 개발된 이론체계와 분류체계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며 도서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용성에 기반한 수정 및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정 및 조정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의사결정의 기준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문헌적 근거이다. 이 장에서는 문헌분류체계의 구성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문헌적 근거의 정의, 관련된 분류원칙/규범, 중요성 그리고 적용분야 등을 중심으로 문헌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문헌의 양' 혹은 '특정 분야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된 지식의 양'으로 정의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도서관협회는 관련개념을 대표하는 표목으로 문헌적 근거를 채택하였으나 관련 연구자들 간에는 '문헌량 근거' 혹은 '문헌적 타당성'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기도 한다. 영어 'warrant'의 사전적 정의가 '행위, 믿음, 감정의 근거나 기반'을 의미하므로 문헌정보학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채용할 수 있는 '문헌량의 다과에 기준한 근거'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헌적 근거를 분류영역에 적용하면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고려만이 아닌 분류작업의 대상이 되는 자원(양)에 기반한 분류체계'로 정의된다(ALA, 2013; OCLC, 2015; 2016). 문헌적 근거라는 개념과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는 Hulme으로서 그는 분류항목 설치와 용어 선정의 근거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연구 'Principles of Book Classification'에서 장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항목설치' 타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문헌적 근거(literary warrant)의 개념과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Hulme, 1911; Barite, 2018에서 재인용).

분류이론의 관점에서 문헌적 근거는 '개념단계(idea plane)'의 '동위 항목 배열 규범(canons for array)'에서 정리하고 있는 '유용한 배열원리(canon of helpful sequence)' 가운데 '문헌적 근거의 원리(principle of literary warra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위 항목의 배열을 결정하는 원리의 하나로서 해당 주제에 관한 문헌량의 다과를 기준으로 항목 배열의 순서를 결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또한 ‘용어의 단계 (verbal plane)’의 하위 원칙 가운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는 해당 주제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범인 ‘현재성규범/통용규범(canons of currency)’도 문헌적 근거와 관련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용어의 선정과정에서 현재 얼마나 많이 쓰이고 통용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범이기 때문이다(Kumar, 1981, 96-126; Ranganathan, 1967). 이와 같은 분류이론에 기반하여 문헌적 근거는 색인시스템에서 특정 용어를 색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색인어 채택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색인어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색인시스템과 분류체계에서 항목 설정 및 배열의 순서결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Barite, 2018).

문헌적 근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문헌을 대상으로 고안된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는 전체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로 전체 주제분야를 포괄해야 한다. 문헌분류체계의 개발자가 문헌분류체계에 포함되는 모든 개별 주제분야의 분류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와 더불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개별분야의 분류체계를 활용치 않고 다시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효율성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는 개별 주제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및 협업을 통해 해당 주제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주제분야의 분류체계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주제 분야와의 조화나 세분정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정작업이 수행된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전 주제분야가 조화를 이룬 범용의 문헌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와 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완성된 문헌분류체계의 실용성이며 실용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문헌적 근거이다. 물론 문헌적 근거만을 가지고 색인어를 선정하고 분류체계를 구축한다면 분류체계의 논리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항목의 하위 세분항목을 선정하고 동위항목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저작의 수가 적다고 개념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설치하지 않거나, 여러 동위의 항목들의 배열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논리적 순서가 아닌 정보자원의 다과를 기준으로 항목 간의 배열순서를 결정한다면 분류체계의 논리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해당 주제영역에서 채용하고 있는 논리적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문헌적 근거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주제분야의 이론적 논리성과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실용성은 분류체계 구축에 필요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문헌분류체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이하 LCC)을 들 수 있다. Chan, Itner, & Weihs(2016)는 LCC 개발 및 항목 관리과정에 적용된 문헌적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에 적용된 이론 체계는 없다. LCC는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 장서를 가능한한 실용적인 방안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크게는 '문헌적 근거'라 불리는 기준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달리 말하면 LC는 수집된 문헌이 요구한다는 긴급한 이유가 없다면 LCC에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지 않는다.”

비록 Chan이 LCC에 적용된 이론체계는 전혀 없다는 표현으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LCC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론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실제 LCC의 개발과정에서 Cutter의 분류체계와 Dewey 십진 분류법의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Chan, Itner, & Weihs, 2016). 따라서 문헌분류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주제분야의 이론체제로 부터는 논리성을 그리고 도서관 현장의 장서로 부터는 문헌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분류체계를 얻을 수 있다.

문헌적 근거는 분류체계의 항목선정과 구조 구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색인어의 선정 과정에서 유사개념을 표현하는 복수의 색인어가 있을 경우 우선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개념을 표현하는 후보 색인어들 가운데 많은 문헌에서 채용하고 있는 색인어를 우선어로 선정한다면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색인어 선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주제명 표목표의 표목 선정과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 선정 등에서도 문헌적 근거는 채용되고 있으므로, 색인시스템, 주제명 표목표, 그리고 통제어휘집인 시소러스의 항목 선정과 구조 구성 과정에서도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영역의 실용성 관점에서 문헌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

나, 유일한 근거는 아니며 학술적, 문화적, 조직적 근거 등 다른 실용적 근거들도 반영하고 있음은 부언해 두고자 한다(Barite, 2017).

3. KDC 분류항목 활용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설치된 분류항목의 활용현황을 최상위 항목인 주류별로 살펴보고 각각의 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중 정보자원이 배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항목과 활용되고 있지 않은 항목, 주류별로 분류된 정보자원수, 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이 배정된 항목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기반하여 가장 많은 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문헌적 근거에서 세분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일 수 있다는 전제아래 세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적합할 지를, 활용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의 축소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개정방안을 모색한다면 많은 자원이 배정된 분류항목은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세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 항목에 대해서는 실용적 분류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항목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개정방안의 기본적 접근은 많은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항목 전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분 방안을 도입하고, 정보자원이 배정되지 않은 세분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항목을 상위항목으로 병합하는 것이 실용적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다음 <표 2>는 한국십진분류법 주류별 분류 항목, 자원이 배정되어 활용된 항목수, 미활용 항목수, 활용된 항목의 비율, 주류 전체에 배정된 자원수 그리고 해당 주류의 분류항목당 분류된 평균자원수 등 한국십진분류법의 개괄적인 활용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2>에서 설치된 분류항목이 많은 주류의 순서는 기술과학(4,911 항목), 자연과학(2,405 항목), 그리고 사회과학(1,740 항목)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주류는 모두 하위의 강항목에 하나의 주류에 버금가는 주제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류들로서 해당 주제들의 전개를 위해서는 분류항목의 설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설치된 분류항목의 활용비율의 관점에서는 사회과학(78.1%), 문학(76.9%)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과학의 경우 가장 많은 9만여 종의 정보자원이 분류된 것에서 높은 활용비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문학의 경우 '언어-형식-시대'라는 주제전개순(citation order)가 적용되는 주류로서 모든 분류항목을 열거식으로 전개해 놓지 않고 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항목의 설치수가 적은 이유가 높은 활용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자연과학의 경우 항목 활용비율이 34.1%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개별 학문분야의 역사가 길고 각 분야에서 주제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표 2> 한국십진분류법 주류별 활용현황

	한국십진분류법 분류항목수 ²⁾	활용 항목수	미활용 항목수	항목 활용비율	배정 자원수	활용 항목당 평균자원수
총류	523	328	195	62.7%	16,238	49.5
철학	666	385	281	57.8%	11,315	29.4
종교	612	418	194	68.3%	13,554	32.4
사회과학	1,740	1,359	381	78.1%	96,017	70.7
자연과학	2,405	820	1,585	34.1%	14,636	17.8
기술과학	4,911	2,495	2,416	50.8%	75,383	30.2
예술	968	616	352	63.6%	34,020	55.2
언어	312	188	124	60.3%	12,811	68.1
문학	316	243	73	76.9%	50,902	209.5
역사	889	438	451	49.3%	15,441	35.3
합계/평균*	13,342	7,290	6,052	60.2%*	340,317	46.7*

합계/평균 항목가운데 *로 표시된 '항목활용비율' 및 '활용항목당 평균자원수'는 분석결과의 평균값임.

2) 한국십진분류법의 분류항목수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산출하였다. 1) 분류본표상의 표목이 부여된 분류항목을 계수, 2) 분류자가 지시에 따라 지역구분, 전주제구분을 조합하여 생성된 항목은 제외, 3) 개정과정에서 이치된 [괄호] 항목 및 별법(원괄호) 항목은 제외, 4) 특정 범위대가 부여된 항목은 1개로 계수-예를 들어 '021.31-37 각국 도서관법'과 같이 범위가 주어진 항목은 지역구분이나 조기표가 조합되는 상위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021.3 항목으로 계수하였음. 이와 같은 원칙하에 산출한 결과를 전창호, 도태현(2014)의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항목수와 비교한 결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차이는 류별로 단단위의 차이를 넘지 않아 거의 일치하였음을 밝혀둔다.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분야인 이유로 이론적인 체계는 세분되어 있으나 정보자료는 상대적으로 발간이 많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활용 항목당 평균자원수의 관점에서는 문학이 209.5종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조합식 성격의 도입으로 설치된 항목이 적은 점과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문학작품이 도서관장서의 40.1%를 차지하며, 813.6과 813.7 세목에 분류되는 한국현대소설이 전체 장서의 14% 내외 차지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김성원, 2012).

이러한 개관은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이해하는 용도로 참조되어야 하며, 분류항목의 세분이나 축소는 추가적인 검토후에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안임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이하의 각 절에서는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한국십진분류법 활용현황을 각 주류별로 살펴보고 추가적인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1 총류

한국십진분류법 총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523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328개, 미활용 항목은 195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62.7%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49.5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총류 항목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3>과 같이 파악된다. 특히 082.1 한국어로 된 2인 이상의 일반 전집, 총서 항목의 경우 분류된 자원수가 3천종 이상으로 세분방안의 고려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최근의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컴퓨터과학 영

<표 3> 한국십진분류법 총류 최다배정 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082.1	2인이상의 일반 전집, 총서/한국어	3,307	주제구분이 어려운 일반 합집을 해당항목에 분류한 것으로 파악되며 세분방안 모색필요
004.61	보안 및 컴퓨터바이러스	396	해당 항목의 아래 세분항목들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세분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룬 저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004.76	멀티미디어응용	390	포함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세분항목으로 전개할 필요 있음
004.77	영상처리	275	상동
004.73	인공지능	252	상동
004.077	컴퓨터과학 + 표준구분-077 각종 시험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면허증	270	표준구분-077이 조합된 항목임 표준구분-077의 관점에서 검토필요
-077	표준구분-077 각종 시험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면허증	-	표준구분-077 세분방안 도입검토 필요

역의 관련 항목들도 세분항목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004.61 보안 및 바이러스 항목의 경우와 같이 세분항목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저작들이 하위항목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편찬되는 경우가 많아 세분항목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총류의 항목은 아니나 표준구분 '-077 각종 시험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면허증' 항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표준구분-077이 조합된 자료들을 전주제에 걸쳐 확인한 결과, 영어(740.77) 1,283종, 한국사(911.0077) 700종, 행정법(363.0077) 370종, 부동산공인중개사(321.329077) 352종, 컴퓨터(004.077) 270종 등으로 항목의 밀도가 높으므로 표준구분-077의 세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구분-077 항목은 6관 개정시 5관의-076 교과서 및 문제집 항목과 통합된 항목이다. 수험서관련 정보자원의 발간동향이 요점정리(교과서)와 문제풀이/해설(수험서)을 병합하여 발간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통합한 항목으로 만약 세분방안을 검토한다면 항목의 적용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총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미활용 항목은 195개 항목으로 37.3%에 해당하는 항목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항목 모두를 축소의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활용 항목이라도 해당 항목의 동위항목들이 활용되고 있다면 분류체계의 논리성 확보의 관점에서 항목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분 동위항목의 다수가

미활용되고 있다면 이런 항목은 상위항목으로의 병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속된 동위항목이 미활용되고 있는가를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반영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4>와 같다.

이상의 미활용 항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도서관 관련 항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문헌분류체계의 구축작업이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들의 전공주제영역에서 필요한 항목을 확장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세분 주제항목에 분류될 특화된 주제를 다룬 정보자원의 발간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상위의 주제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3.2 철학

한국십진분류법 철학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666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385개, 미활용 항목은 281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57.8%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29.4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철학류 항목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5>와 같이 파악된다. 특히 186 임상심리학 및 189 응용심리학 분야는 심리학 분야에서 현장에서의 적용이 활발한 분야로 세분방

〈표 4〉 한국십진분류법 총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003.7	시스템의 종류	1, 4, 5, 6, 8	5개의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되고 있으므로 상위항목에 포함주로 병합
005.753	데이터베이스모델	2, 5, 6	7개 동위 항목 중 4개는 활용되고 있으므로 유지
012.1	필사본	1, 2, 3	현대 도서관에서 손으로 필사한 자료의 입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017.1	희구서(稀觀書) 및 선본(善本)서지 및 목록	2, 3, 4	현대 도서관에서 입수 가능성이 낮은 항목으로 판단됨
022	도서관 건축 및 설비	2, 4, 5, 6, 7, 8	도서관 건축/설비와 관련된 하위항목 중 계획(022.1)과 설계(022.3) 이외의 동위 항목은 상위항목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큼
022.4	서고와 서가	2, 3, 6, 8	도서관 서고와 서가와 관련된 하위항목으로 4개의 미활용 동위 항목은 상위항목(공간구성, 설비)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큼
023.2	도서관 직원, 사서직	2, 3, 5, 6, 7, 8, 9	도서관 인사관리와 관련된 하위항목으로, 상위항목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큼
023.8	도서관 이용규정	1, 2, 3, 4	도서관 이용규정의 하위 주제로 개별 주제를 다룬 정보자원 발간 가능성이 낮으므로 상위항목으로 병합
070.48	특수신문	2, 6, 9	078 특수주제의 신문에서 전주제구분을 통해 전개가 가능하고, 교착분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가능

* '미활용 분류항목'란에 표기된 항목기호는 '상위항목'의 세분항목 기호임. 즉 위 표에서 마지막 항목인 특수신문 070.48의 미활용항목 2, 6, 9는 상위항목 070.48의 하위항목 070.482, 070.486, 070.489 항목을 각각 의미함. 이하 미활용 항목을 정리한 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표 5〉 한국십진분류법 철학류 최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186.3	임상심리학 > 상담 및 진단	1,478	임상심리학의 상담분야는 현장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세분방안 검토가 필요
199.1	도덕훈, 교훈 > 인생훈	888	해당 항목의 아래 세분항목들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세분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룬 저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190	윤리학, 도덕철학	429	포함주로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세분항목으로 전개할 필요 있음
186.5	임상심리학 > 정신요법	397	상동
189	응용심리학 일반	354	상동

안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0 윤리학과 199.1 인생훈 항목도 추가적인 세분 항목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학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활용 항목은 281개 항목으로 42.2%에 해당하는 항목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들도 미활용되고 있는 지를 고려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십진분류법 철학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131	관념론 및 연관철학	1, 2, 3, 4, 5, 6, 7, 9	131.8 항목을 제외한 8개의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144	예류(禮類)	1, 4, 5, 6, 7, 9	6개 항목 미활용
160.21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철학	1, 2, 3, 4, 5, 6, 7, 8	설치된 8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160.22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및 소크라테스학과	1, 3, 4, 5, 6, 7	7개 동위 항목 중 .222 소크라테스 469-399 BC를 제외한 6개 동위 항목 미활용
160.32	스콜라 철학	2, 3, 4, 5, 6, 7, 9	8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165.1	독일 계몽기철학(17세기-18세기)	3, 4, 6, 7, 9	6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165.6	체계적 철학자	2, 3, 4, 5, 7	6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165.7	신칸트학과 및 현대철학	1, 2, 5, 6	6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
197	성윤리(性倫理) 및 생식윤리	1, 2, 5, 6	197 성윤리 하위항목은 모두가 미활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이상의 미활용 항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서양 철학의 다수 세분항목이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철학분야의 저술이 개별 철학자가 아닌 해당 학과의 관점에서 발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전반적으로 항목을 축소하고 필요시 포함주로 열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7 성윤리 및 생식윤리 항목도 목항목에 소수의 자원이 분류될 뿐 하위항목은 미활용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3 종교

한국십진분류법 종교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612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418개, 미활용 항목은 194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68.3%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항목의 활용비율이 높은 주류로서 강항목에 개별 종교를 배정하고 목항목은 종교공통구분을 적용하는 조합식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

다.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32.4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종교류 항목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7〉과 같이 '234.4 기독교 설화', '235.2 설교', 그리고 '235.35 목회상담' 항목으로 파악된다. 자료가 많이 분류된 항목 가운데 선교, 기독교교육, 기독교 신학 등의 항목들은 하위의 세분항목이 전개되어 있고 특정한 하위 주제를 세분할 방법이 제공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상위 주제의 관점에서 하위항목들을 포함한 저작이 많아 해당 항목에 분류된 자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교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활용 항목은 194개 항목으로 31.7%에 해당하는 항목은 활

〈표 7〉 한국십진분류법 종교류 최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234.4	기독교 설화	924	기독교 신화를 포괄하는 항목으로 세분항목 전개검토 가능
235.2	설교	646	설교집이 정보자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설교자를 세분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
233	성경	507	하위항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235.35	목회상담	407	세분항목 전개검토 가능
235.6	선교	280	하위항목으로 국내, 외국 및 세분전개 방안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235.7	기독교교육	256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231	기독교 신학	230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8〉 한국십진분류법 종교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217	예배형식, 의식, 의례	1, 2, 3, (39), 4, 5, 6, 7, 8	8개의 동위 항목과 하위항목 모두 미활용
223.52	본연부(本緣部)	1, 2, 3, 4, 9	5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223.59	밀교부(密敎部)	1, 2, 3, 4, 5, 6, 7, 9	8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223.81	석경론부(釋經論部)	1, 2, 3, 4, 5, 6, 7, 9	8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223.86	유가부(瑜伽部)	1, 3, 4, 5, 9	6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223.87	논집부(論集部)	1, 2, 3, 4, 5, 6, 7, 8, 9	9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225.2	설법	1, 5, 6, 9	4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225.73	신도교육	1, 2, 3, 4, 5, 7	6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238.9	기타 기독교 분과	1, 3, 4, 5, 7, 8	9개 동위 항목 중 6개 항목 미활용
243	도장(道藏)	1, 3, 4, 5, 6, 7, 9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들도 미활용되고 있는 지를 고려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8〉과 같다.

이상의 미활용 항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불교경전의 다수 세분항목이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교의 개별경전 자체나 경전에 대한 저작이 많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항목을 축소하고 필요시 포함주로 열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8.9 기타 기독교 분과와 243 도교 > 도장(道藏) 항목도 소수의 자원이 분류될 뿐 하위항목은 미활용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4 예술

한국십진분류법 예술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968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616개, 미활용 항목은 352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63.6%인 것으로 파악된다. 항목의 활용비율이 중간 정도인 주류로서 강항목에 개별 예술 분야인 미술, 조각, 공예, 음악 등을 배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모습으로 6판에서 540 건축학으로 병합된 [610] 강항목이 공기호로 남아있어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양적인 주제인 서예가 640 강항목에

배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55.2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예술류 항목 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9>와 같이 다수의 항목이 파악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673.511 한국 대중음악, 673.53 서양 대중음악, 658 디자인, 600 예술의 하위항목을 들 수 있다. 600.13 예술사회학과 600.15 예술행정의 항목도 문헌적 근거의 관점에서 세분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항목으로 파악된다. 또한 688.6 만화영화와 691.15 컴퓨터게임 항목은 현

재 분류된 자원의 수는 적으나 향후의 관련 자원이 많이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어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술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 보도록 한다. 미활용 항목은 352개 항목으로 36.4%에 해당하는 항목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들도 미활용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10>과 같다.

이상의 미활용 항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예술의 대상이나 공연방식을 세분한 다수의 항목이 미활용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다. 문헌적 근거를 엄격히 준용한다면 해당 항목의 축소와 상위항목으로의 병합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동

<표 9> 한국십진분류법 예술류 최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673.511	한국대중음악	7,788	세분방안 모색이 필요, 가능한 구분 특성으로 음악장르, 가수 활동형태(솔로/듀엣, 밴드) 등이 가능하며, 특성선택후 주제 전개순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88.21	극영화 + 별법항목-1(드라마, 멜로)	1,121	별법으로 제공된 '드라마, 멜로'를 적용하여도 자원수가 과다함, 세분방안 검토필요
653.11	653 시대별 및 국별 회화 + 지역구분 -11 한국	920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658.2	산업디자인	806	세분항목 전개검토 가능
600.13	예술 사회학, 민속학, 경제학	715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600.15	예술행정	578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651	채색 이론 및 실재	572	목항목으로 하위 세부 항목이 없음
658	디자인	532	하위항목으로 국내, 외국 및 세분전개 방안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676.2	피아노	498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606.3	전시회, 전람회(도록)	485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673.53	서양의 대중음악	451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688.6	만화영화	441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691.15	컴퓨터게임, 전자오락	164	다수의 저작이 발간 예상됨

〈표 10〉 한국십진분류법 예술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600.45	예술의 주제 > 인물	2, 3, 5, 6	5/4 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
600.910	아시아(동양)예술사	1, 2, 3, 4, 5, 6	6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시대구분을 적용하여 조합된 항목으로 굳이 본표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시 조합가능-620.901-906의 항목도 동일
622.5	조소 > 기법	2, 3, 5, 6	4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22.6	조각의 유형	1, 2, 3	3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27.9	상위항목 없음	3, 4, 5, 7	4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조정의 규범 위배
629.3	기독교상	1, 2, 3, 9	4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42	한자서법	1, 2, 3, 4, 5, 6, 7	7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48	서보, 서첩, 법첩	1, 2, 3, 7	5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654.22	불교화	2, 3, 4, 5	5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660.1	사진이론	2, 3	2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61	사진기, 사진재료	2, 3, 4, 7, 9	8개 동위 항목 5개 항목 미활용
663	음화처리	3, 4, 5, 6, 8, 9	6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66	특수사진술	1, 2, 4, 6, 72	8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세분항목도 미활용이 많음
673.19	성악실연	2, 5, 6	5개 동위 항목 3개 항목 미활용
673.3	성악 > 독창 및 중창	3, 4, 5, 6, 7	7개 동위 항목 5개 항목 미활용
673.6	단체 및 주제별 음악	1, 6, 8	4개 동위 항목 3개 항목 미활용
676.9	타악기	1, 3, 4, 7	7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679.1	국악이론	1, 4, 5, 7	7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679.211	궁중제례악	1, 2, 3, 4	4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79.51	성악	2, 3, 4, 5, 7	7개 동위 항목 5개 항목 미활용
679.9	동양전통음악	4, 5, 7, 8, 9	8개 동위 항목 5개 항목 미활용
681.2	무대의 형태	1, 2, 3, 4, 6, 7	6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688.8	특수영화	2, 3, 4, 6	5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691.73	모던댄스	3, 4, 5	5개 동위 항목 3개 항목 미활용
691.74	라틴댄스	1, 2, 3, 5	5개 동위 항목 4개 항목 미활용

위 항목이 일부라도 활용된 경우라면 분류표의 논리성 확보차원에서 항목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600.91 아시아(동양)예술사, 620.9 조각사에 전개된 하위항목들은 시대구분을 적용하여 본표상에 전개하였으나 미활용된 항목들로서 상위항목에 시대구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지시주를 설치하고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5 언어

한국십진분류법 언어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312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188개, 미활용 항목은 124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60.3%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항목의 활용비율이 높은 주류

로서 강항목에 개별 언어를 배정하고 목항목은 언어공통구분을 적용하는 조합식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설치된 항목이 많지 않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68.1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언어류 항목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11>과 같다. 선별된 항목가운데 710.77 한국어 문제집, 740.77 영어문제집 항목은 표준구분-077 항목을 조합하여 본표상에 설치된 항목이므로 총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구분-077의 세분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세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710 한국어와 740 영어 항목은 하위항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포괄적인 자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710.7 한국어지도법, 745 영어문법, 747 영어 독본 등의 항목도 하위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자료의 성격이 해당 주제를 포괄적으로 상위 주제의 관점에서 다룬 저작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활용 항목은 124개 항목으로 39.7%에 해당하는 항목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들도 미활용되고 있는 지를 고려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12>와 같다.

이상의 미활용 항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미활용 항목은 소수언어와 관련된 항목이다. 영어의 공용화가 진행되고 소수언어는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전문기관이 아닌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언어와 관련된 저작을 입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분류법의 논리성 차원에서 설치된 항목이니만큼 유지하거나 상위항목으로 합병하더라도 상위항목에 포함주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외의 두항목은 중국어 > 문자 > 자형 항목으로

<표 11> 한국십진분류법 언어류 최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740.77	영어 + 시험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1,283	영어 + 표준구분-077
740	영어	1,156	하위항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710.7	한국어 > 지도법 연구법	1,009	하위항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747	영어 > 독본, 해석, 회화	1,001	하위항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710.77	한국어 + 시험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690	한국어 + 표준구분-077
710	한국어	584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745	영어 > 문법	516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2〉 한국십진분류법 언어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721.26	중국어 > 문자 > 자형	2, 3, 4, 5, 6	6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739.6	기타 아시아 제어 > 핀우그르어파	3, 5, 7	5개 동위 항목 중 3개 항목 미활용
740.9	영어사	1, 2, 3	3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시대구분이 적용된 항목으로 조합지시로 대체
759	기타 게르만어파	1, 2, 4, 5, 6, 8, 9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759.3	네덜란드 제어	1, 2, 6	3개 동위 항목 모두 미활용
792	인도유럽어족	4, 5, 7, 9	8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
792.9	기타 슬라브어파	1, 2, 4, 6, 7, 9	8개 동위 항목 중 6개 항목 미활용
796	오스트로네시아어족	2, 3, 4, 5, 6	7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자형 모두를 포괄하는 상위항목에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서예의 641 한자서체에도 전개되고 있는 바, 세분이 필요한 경우 641로부터 번호조합을 하도록 지시주를 설치하고 축소하여도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740.9 영어사의 하위항목은 600.9 예술사 항목과 마찬가지로 시대구분을 적용하여 본표상에 전개하였으나 미활용된 항목들로서 상위항목에 시대구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지시주를 설치하고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6 문학

한국십진분류법 문학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316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243개, 미활용 항목은 73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76.9%로 사회과학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활용비율을 보인다. 문학류의 활용비율이 높은 이유는 문학인 '문학-언어-문학형식-시대'의 주제전개순을 채용하고 문학작품의 언어를 분류하는 강항목에는 국어구분표, 형식을 분류하는 목항목에는 문학형식구분표

를 조합하는 조합식 구성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표상에 설치된 항목수가 적은 때문이다.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209.5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문학류 항목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13〉과 같다. 소설의 경우 각국어 소설이 모두 자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국어로 된 소설항목의 경우 한국소설의 세분을 위해 마련된 별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세분을 위한 별법이 마련되어 있는 한국소설외에도 한국시, 한국어 르포르타주, 한국수필 상당한 자원이 분류되어 있어 세분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문학형식을 위해 마련된 별법은 다른 언어로 된 동일형식의 문학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분류기준을 채용해야 할 것이다. 808.3 세계소설문학전집의 경우도 자원의 수가 많은 것으

〈표 13〉 한국십진분류법 문학류 최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813.7	한국소설 > 21세기	7,892	세분방안이 별법으로 마련되어 있음, 언어별 소설항목에는 공히 많은 자원이 분류됨(영어소설 965종, 일본어소설 4,748종)
811.7	한국시 > 21세기	6,976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811.62 20세기 한국시도 1,595종이 분류되어 있음
833.6	일본소설 > 20세기	4,748	한국소설을 위해 마련된 별법 적용가능
818	한국문학 > 르포르타주	2,926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814.7	한국수필 > 21세기	1,710	세분항목 전개검토 필요
830	일본문학	1,529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808.3	문학전집 > 소설	1,370	하위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14〉 한국십진분류법 문학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802.2	희곡, 극작법	1, 7, 9	5개 동위 항목 중 3개 항목 미활용
832	일본희곡	2, 3	3개 동위 항목 중 2개 항목 미활용
839.1-898	우랄알타이 문학-함족문학	54개 항목	각 언어별 문학을 전개한 54개 항목

로 파악된다. 자료의 성격상 다양한 언어, 형식, 시대를 포괄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 세분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전집의 경우 수십권의 다권본으로 구성되므로 실제 구분이 필요한 종수로는 집계된 자원수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활용 항목은 73개 항목으로 23.1%에 해당하는 항목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들도 미활용되고 있는 지를 고려하여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14〉와 같다.

문학류의 미활용 항목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조합식 구성을 하고 있고 본표상의 설치된 항목수가 많지 않은 이유로 미활용 항목도

많지 않았다. 동위 항목 중 미활용 항목이 반을 넘는 항목도 2개 항목뿐으로 분류법의 논리성을 고려하면 축소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학류 미활용 항목의 대부분은 개별 언어문학을 위한 항목들로서 54개 항목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항목은 향후 활용가능성이 있고 소수언어의 보호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7 역사류

한국십진분류법 역사류의 분류항목 활용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설치된 분류항목은 889개의 항목이며, 이 가운데 정보자원이 배정된 항목은 438개, 미활용 항목은 451개로 설치된 항목의 활용비율은 49.3%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적으로 항목의 활용비율이 낮은 주류

로서 강항목에 개별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 위한 항목의 설치가 많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활용된 항목 당 배정된 정보자원은 평균 35.3종으로 파악된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세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만한 항목을 배정된 자원의 다과에 따라 선별한 결과와 세분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역사류 항목 가운데 문헌적 근거를 기준의 관점에서 세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표 15>와 같다. 선별된 항목 가운데 한국사 문제집, 911.0077 항목은 표준구분-077 항목을 조합한 항목이므로 총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구분-077의 세분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면 세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표 15>에 선별된 항목 중 한국사, 세계사, 중국사 등의 항목은 하위항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으나 하위 주제를 모두 포괄하여 상위 주제의 관점에서 저술된 저작들이 많은 항목으로 판단되므로 세분방안의 고려가 불필요하다. 전기 항목은 하위에 성별, 종사분야, 지역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 항목이 전개되어 있으나 상위항목에 분류된 자원들로

보인다. 다만 하위에 성별, 종사분야, 지역 등의 항목 간의 조정과 더불어 어떤 특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인 여성 사회학자의 전기의 경우 한국전기, 여성전기, 사회학자 전기 항목 가운데 어떤 항목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시가 없다면 분류작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항목인 전기 990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류에 설치된 분류항목 가운데 정보자원이 분류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항목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활용 항목은 451개 미활용 항목 비율은 50.7%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류의 미활용 항목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역사류의 하위항목은 주로 지역과 시대를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각 지역의 시대를 구분하는 왕조의 성립과 붕괴와 같은 사건들이 다양하여 공통적인 항목 구성을 하기 어렵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항목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항목을 설정해야 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사한 하위항

<표 15> 한국십진분류법 역사류 최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표목	자원수	검토결과
911.0077	한국사 + 시험대비용 교재 및 문제집	740	한국사 + 표준구분-077
990	전기	728	하위항목간 우선적용순서 명시필요
911	한국사	714	하위항목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저작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911.05	한국사 > 조선시대	407	상동
911.1	한국사 > 북한 전역	403	상동
909	세계사	384	상동
912	중국사	355	상동
981.102	지리 > 아시아/한국 > 기행	334	세분항목 전개검토 가능

〈표 16〉 한국십진분류법 역사류 미활용 항목

상위 분류항목	표목	미활용 분류항목	검토결과
911.1	관북지방(關北地方)	2, 3, 4, 5, 6, 7, 8, 9	9개 동위 항목 중 8개 항목 미활용-하위 단위의 저술보다는 통합저술이 주류
911.2	관서지방(關西地方)	1, 2, 3, 4, 6, 7, 8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11.3	해서지방(海西地方)	1, 2, 3, 4, 6, 7, 8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12.05	중국사 > 명(明), 중세 하	2, 4, 6, 8	7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
915	인디아와 남부아시아	1, 2, 4, 5, 6, 8, 9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18.30	이란사-시대구분	2, 3, 4, 6	5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시대구분 적용지시
919	아라비아반도와 인접지역	3, 4, 5, 7, 8, 9	8개 동위 항목 중 6개 항목 미활용
923.10/ 923.40/ 923.70/	스웨덴사-시대구분 핀란드사-시대구분 덴마크사-시대구분	3, 4, 5, 6	4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시대구분 적용지시 가능하나 지역 특성반영불가
923.03	영국, 아일랜드 > 중세사-시대구분	1, 4, 6, 8	4개 동위 항목 중 4개 항목 미활용-시대구분 적용지시
924	영국사	1, 2, 3, 4, 5, 6, 7, 8, 9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25.03	독일 > 중세사	1, 3, 4, 5, 6	5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925.04	독일 > 중세사	4, 6, 8	4개 동위 항목 중 3개 항목 미활용
926.03/ 926.05/ 926.07/	프랑스 > 중세/근세-시대구분		총 12개 항목 중 9개 항목 미활용
926	프랑스사	1, 2, 4, 5, 6, 7, 8	8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26.90	네덜란드사-시대구분	2, 3, 4, 5, 6, 7, 8	7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27.0	스페인사-시대구분	2, 3, 4, 5, 6, 7	6개 동위 항목 중 6개 항목 미활용
927	스페인사	1, 3, 4, 5, 7	7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927.90	포르투갈사-시대구분	3, 4, 5, 6, 7, 8	7개 동위 항목 중 6개 항목 미활용
928	이탈리아사	1, 2, 3, 4, 6, 7, 8, 9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29.0	러시아사-시대구분	1, 2, 3, 4, 5	9개 동위 항목 중 5개 항목 미활용
929	러시아사	1, 2, 3, 4, 5, 6, 8	8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41.0	캐나다사	3, 4, 5, 6, 7, 8	6개 동위 항목 중 6개 항목 미활용
942	미국사	1, 2, 3, 4, 6, 7, 8, 9	9개 동위 항목 중 7개 항목 미활용
929.9-968.2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사 항목	200여 항목	지역항목 180, 시대항목 20여 항목이 미활용
990.9	특수전기	1, 2, 3, 5, 6, 7, 8	9개 항목 중 94 여성 항목을 제외한 8개 미활용

목들을 전개할 수 있어 하위항목의 전개에 조합식 분류체계의 성격을 적용한 종교, 언어, 문학류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이들 항목 가운데 동위항목 중 미활용 항목이 과반이 넘는가를 기준으로 선별한 미활용 분류항목은 다음 〈표 16〉과 같다.

이상의 미활용 항목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미활용 항목은 특정국가의 시대구분과 지역구분을 위해 전개된 항목이다. 한국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 특정국가의 통사가 아닌 지역사나 특정 시대에 국한된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해당 항목의 활용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의 항목이라도 활용이 되는 경우 해당 항목만을 유지하기 보다는 동위 항목을 모두 전개하는 것이 또 다른 근거인 학술적 근거에 기반한 분류법의 논리성 관점에서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개별 도서관에서 한 항목이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개별 도서관들의 수요를 총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왕의 항목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지역의 항목 또한 당장의 활용여부에 더하여 남한지역과의 항목 균형 그리고 통일이후까지의 수요를 감안하면 항목

의 유지와 지속적인 갱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해당 항목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와 같이 일반적인 시대구분을 조합할 수 있도록 조합지시를 하고 해당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KDC 발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스웨덴과 인접국인 노르웨이의 고대, 중세, 근세에 해당되는 년도가 다른 것처럼 국가별 시대구분이 상이한 경우도 많아 공통적인 연도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923	스칸디나비아 Scandinavia 북구 및 북해의 종합저작을 포함한다.
.1	스웨덴 Sweden
.103	고대 및 중세 -1523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칼마르연합(Kalmar Union)시대 1397-1523을 포함한다.
.104	근세 1523-1905 Modern history 바사(Vasa)왕조 1523-1654, 왕권몰락 1654-1818 등을 포함한다.
.105	20세기 1906-1999 20th century
.106	21세기 2000- 21st century
.4	노르웨이 Norway
.403	고대 및 중세 -1387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404	근세 1387-1905 Modern history 덴마크와 연합 1387-1814, 스웨덴과 연합 1814-1905 등을 포함한다.
.405	20세기 1905-1999 20th century
.406	21세기 2000- 21st century

〈그림 1〉 한국십진분류법 '923 스칸디나비아사' 항목 발췌

4. 결 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범용의 문헌분류체계 구축과정에서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의사결정 기준인 문헌적 근거의 관점에서 한국 십진분류법의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의 의의는 개정의 검토가 필요한 분류항목을 문헌적 근거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분류체계는 지식의 분화와 통합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등장에 따라 끊임없이 항목 추가와 수정을 통한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행화의 업무를 위해서는 개별 주제의 이론적 체계의 변화나 새로운 주제의 등장과 활성화를 주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칫 거시적 관점에서의 실용적 필요성은 놓치고 특정 주제의 진화 및 변화에만 미시적인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십진분류법의 전반적인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였고 가능한 곳에서는 개략적인 해당 항목의 수정방향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항목 단위로 추가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본고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한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선별된 항목의 제개정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이론적 논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은 중언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실용적인 문헌적 근거와 이론적인 논리성의 조화속에 논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문헌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된 검토항목을 나뉘면 크게 다음의 네 개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총류의 컴퓨터과학과 같이 세분항목의 확장적 전개가 필요한 경우, 둘째, 표준구분-077과 같이 항목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셋째, 분류기호의 조합이 지시된 항목 중 정보자원의 양이 많음에도 본표상에 항목이 표시되지 않아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야기하므로 편집상의 정비를 통한 분류작업의 편의성 증진이 필요한 항목, 넷째 철학, 역사 등의 세분항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항목의 축소 및 상위항목으로의 합병이 필요한 경우이다. 주류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상이하였으며, 각각의 주류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상당수 미활용 항목의 경우 세분전개된 하위항목은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상위항목에는 다수의 저작이 분류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항목의 경우 하위항목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시나 정의를 통해 하위항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면 활용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항목의 축소에 앞서 명확한 지시의 제공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범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을 위한 주류단위의 접근은 하위주제가 여타의 주류만큼 광범한 주제를 포괄하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들 주류에 대해서는 강항목에 배정된 주제를 검토 단위로 하는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성원 (2012).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소설항목의 세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57-78.
- [2] 김정현 (2014).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03-123.
- [3] 김정현 (2017).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63-81.
-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www.libsta.go.kr/index.do>
- [5] 오영옥, 이미화 (2019). 어린이도서 분류를 위한 KDC 6판 개선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105-124.
- [6] 이희진, 김정현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01-317.
- [7] 전창호, 도대현 (2014). 문헌적 근거에 기반한 한국십진분류법의 전개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15-122.
- [8] 정옥경 (2014). 한국십진분류법의 디지털 관련 항목명 확장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177-199.
- [9] 조혜전, 정연경 (2018). 중학생의 소설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 분야 분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1), 61-82.
- [10] 한경신 (2014). 한국십진분류법 국방군사학(390)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07-229.
- [11]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2]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편 (2013). 한국십진분류법 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3).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th ed. Atlanta: ALA.
- [14] Barité, Mario (2018). Literary Warrant. Knowledge Organization, 45(6), 517-536.
- [15] Chan, L. M., Intner, S. S., & Weihs, J. (2016).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anta Babara: Libraries Unlimited.
- [16] Hulme, E. W. (1911). Principles of Book Classification: Chapter III: on the definition of class headings, and the natural limit to the extension of book classification. Library Association Record, (13), 444-449.
- [17] Kumar, K. (1981). Theory of Classification.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 [18] OCLC (201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Glossary.
Available: <http://www.oclc.org/support/documentation/glossary/dewey.en.html#C>
- [19] OCLC (2016). Webdewey.
Available: <http://www.dewey.org/webdewey/standardSearch.html>
- [20]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ungwon (2012). A research on close classification for korean fiction in KDC: focusing o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57-78.
- [2] Kim, Jeong-Hyen (2014). The improvements of the tourism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03-123.
- [3] Kim, Jeong-Hyen (2017). The improvements of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63-81.
- [4] Korea,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21). National Libraries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www.libsta.go.kr/index.do>
- [5] Oh, Young-Ok & Lee, Mi-Hwa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application of KDC 6th ed. for classifying the children's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105-124.
- [6] Lee, Hee-Jin & Kim, Jeong-Hyen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the Biblia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01-317.
- [7] Jeon, Chang-ho & Do, Tae-hyun (2014). The literary warrant based improvement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Proceedings of the 2014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15-122.
- [8] Chung, Ok-Kyung (2014). A study on expansion of headings for digital trends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177-199.
- [9] Cho, Hye-Chon & Chung, Yeon Kyoung (2018). A study on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of fiction to enhance to accessibility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1), 61-82.

- [10] Hahn, Kyung-Shin (2014). A study on the military science schedules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207-229.
- [11]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2]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f Classific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6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